

남북한 중학교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남한 2015 개정교육과정과
북한 2013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중심으로

최진환**

남북한 중학교 체육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비교 자료는 북한의 2013 교육강령과 남한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이고, 비교·분석 대상은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네 범주이다. 북한의 체육 교수요강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키크기 운동과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 소유,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 체육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남북의 체육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체육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남과 북은 공통점이 많다. 남한의 교육과정 발전 단계에서 6~7차 체육 교육과정이 북한의 2013 교육강령의 체육 교수요강과 교육 내용 구성 면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셋째, 남북 교수·학습 방향성과 평가에는 수업 시 간접 체험 활동과 방과 후 체육활동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북한은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남한은 평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향후 남북 체육교과 교류 및 통합을 위해 방과 후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남한의 학교스포츠클럽과 북한의 과외체육소조를 매개로 학생 중심의 체육 교류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남북 체육교육과정, 체육교수요강, 학교스포츠클럽, 과외체육소조

*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세현고등학교 교사.

1. 서론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70여 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체제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된 교육과정 중에서 체육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또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남북 교육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남북의 교육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의 체육교육과정 연구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되었다.¹⁾ 그런데 북한의 교육과정인 교육강령으로 정리된 정식 자료의 분석보다는 단편적인 체육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북한 체육교육과정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남한의 체육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교육강령을 중심으로 소학교 체육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나, 북한의 중등 체육 교육의 역사성이나 변화를 읽어 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²⁾ 또한, 2013 교육강령이 발표된 이후에 북한 체육 교육의 안착과 현장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 교원(교사)³⁾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교원선전수

1) 이승희,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본 체육 통일교육 발전방안,” 『인문사회 21』, 제9권 4호(2018); 김희수, “남·북한 간의 체육교육과정 비교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6권(2010); 김호영, “남·북한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비교분석”(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 배명훈·김진숙·김상목, “독일 교육통합 과정 분석을 통한 남북 체육과 교육과정 통합 방안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4권 4호(2020).

3) 북한에서는 교사를 교원이라고 지칭한다. 본고에서는 문맥에 맞게 혼용하고자 한다.

첩』, 『체육교수참고서』 등과 같은 북한 1차 자료를 통해 그 경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⁴⁾

현재 남한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안에 체육과⁵⁾ 교육과정도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체육과의 교육과정은 종목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대전환을 이뤘다.⁶⁾ 2009 개정교육과정의 토대 위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을 강조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안전영역이 신설되는 등 내용 면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⁷⁾ 한편,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전원회의에서 학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개정된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발표되었다.⁸⁾ 기존 11년제에서 1년이 늘어난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중등교육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였다. 이것은 초기 중등교육과 후기 중등교육을 분리함으로써 후기 중등교육에서

4) 『교원선전수첩』은 중학교 교원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발행하고 당정책, 학생교양, 교수방법, 자료와 상식 등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수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 문헌이다. 또한 『체육교수참고서』는 2012년에 학제 개편이 단행되고 나서 2013년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의 체육 수업 교사용 지도서와 비슷한 책이다.

5) 북한에서 체육은 곧 스포츠이다. “스포츠가 곧 체육이다”라고 정의한다. 남한에서는 체육과 스포츠가 혼재되어 표현되지만, 남북 교류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스포츠 대신 체육을 주로 사용해 왔다.

6) 이규일·허창혁,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체육과 평가 실태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제18권 4호(2011).

7)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58-259쪽.

8)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2호(2014), 177-178쪽. 기존의 4-6제 초중등교육제에서 5-3-3으로 바꾸고 의무교육 기간을 1년 연장하여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사회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 즉, 학제의 불합리성을 없애고 김정은 시대에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 교육의 방향과 목적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북한 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2013년에 개정되어 나온 ‘교육강령안’에는 학년별 교과 구성과, 수업 시수, 전체 학기 일정을 명시한 ‘교육과정안’과 각 교과의 교육 내용, 방법, 교과 내용별 시간배정 등을 명시한 ‘교수요강’이 작성되어 있다.¹¹⁾ 그중 체육 교수요강¹²⁾은 북한 체육교과 자료로서는 가장 최신 정보에 해당하고, 현재 진행형인 북한의 체육교과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북한의 2013 교육강령의 등장에 따른 체육교수요강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체육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2013 체육교수요강의 특징을 파악하고 남북의 중학교 체육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9) 위의 글, 186~187쪽.

10) 『노동신문』, 2012년 4월 19일 자 김정은 담화의 키워드는 교육의 현대화, 대학 교육의 강화, 세계적 수준의 과학인재, 중등교육 수준 향상 등 결국 인재강국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11)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178쪽.

12)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평양: 교육위원회, 2013), 207쪽. 북한의 교육강령(교육과정)에는 교수요강(과목별 교육과정), 교과서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2. 연구 방법과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분석 연구이고, 남북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체육교육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이다. 북한 교육과정의 문헌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남한의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표현이 일대일로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비교·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북한의 체육 교수요강과 남한의 체육교과 교육과정에는 그 체제나 명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과별 교육과정에 있어야 할 필수 요소인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수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네 가지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구성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질문영역으로 교육목표, 학습경험 선정, 학습경험 조직, 평가 등의 네 가지 범주라고 주장한 테일러(R. Tyler)의 교육과정이론에서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¹³⁾ 이와 관련해서 조주연(1996)의 연구는 남북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의 틀에서 기본적으로 교과 목표, 학습 영역, 교수학습과 평가 등을 소개하지만 그 외에도 교과 내용의 표현 방식과 기술방식 등에 대해 남북의 차이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남한의 중학교와 북한의 초급중학교 체육교육과정으로 한다. 남한의 중학교는 만 13세에서 15세까지이고, 북한의 초급중학교는 만 12세에서 14세이다. 남한의 중학교와 북한의 초급중학교가 비슷한 학령기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체육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체육교수요

13) 김두정, "학교 교육과정 이론의 다양성과 한국적 선택," 『교육과정연구』, 제31권 2호(2013), 6쪽.

강을 주된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되, 남한의 6~7차 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 등 개발과정에 따른 비교 가능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의 체육교육과정과 북한의 체육교수요강을 중심으로 네 가지의 공통 범주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남북 체육교육의 기본방향성과 목표이다. 이는 남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체육교육을 끌어가하고자 하는지 국가의 의도를 큰 틀에서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국가가 어떤 의도와 지향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비교·분석하자 한다. 둘째는 교육 내용이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방향성과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분류하는 방법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교수·학습의 방향성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북한은 교과서 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두 장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남한도 교수·학습·학습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교수·학습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다. 넷째는 평가이다. 체육교과의 평가는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과 연계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교하여 본다. 또, 어떤 영역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지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네 가지 분석 내용을 통해 남북한의 체육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제시되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내용에 관한 목차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서술의 방법과 순서에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의 분석 내용을 토대

<표 1> 남북한 교육과정 목차 비교와 분석 내용

순서	남한 체육교육과정 목차	북한 체육교수요강 목차	분석 내용
1	1. 성격 2. 목표	머리말 1.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방향성과 목표
2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2. 교수내용	교과 내용
3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가. 교수·학습	3.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4.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교수·학습 방향
4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나.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5. 학업성적평가원칙	평가

자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중학교 체육과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초급중학교 체육 교수요강을 요약했다.

로 남한의 2015 교육과정 등을 먼저 소개하고, 북한의 2013 체육 교수요강 북한 1차 자료를 비교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 남북 체육교육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김정은 시대의 ‘체육 강국’과 학교체육

김정은 시대의 ‘체육강국’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혔듯이 김정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¹⁴⁾ ‘체육강국’의 첫 언급은 김정일 시대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14)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치 of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6호(2015), 453쪽; 김홍태·김영란·윤정신, “북한 체육강국 건설 의미와 실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5.), 89~92쪽.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을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¹⁵⁾라는 단 한 문장으로 제시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한 문장이 국가의 모든 체육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기사나 사설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체육강국’의 의미에 대해서 허정필과 김용현은 ‘스포츠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성과는 곧 사회주의 체제의 승리라고 선전하고, 체육 정치를 통해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건설을 통해 민심을 얻기 위한 체육 정치’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⁶⁾ ‘체육강국’ 건설이라는 담론의 의미는 김정은의 집권 초반 민심을 수습하고 인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내세우기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성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은 2012년 국무위원회 산하에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모든 체육정책을 관장하게 하고 체육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그 기관을 통해 북한의 전문체육과 대중체육의 두 축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동하게 되었다.¹⁷⁾

전문체육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1972년 처음 하계 올림픽에 출전한 이래로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금메달을 획득하였다.¹⁸⁾ 북한은 올림픽 외에도 1999년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에서의 우승과¹⁹⁾ 2006년과 2008년 세계여자축구대회 우승을 통해 국제적인

15) “신년사,” 『로동신문』, 2011년 1월 1일.

16)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449쪽.

17) “김정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5년 3월 26일.

18)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북한은 금메달이 없다.

19) 정성옥은 체육인으로서 유일하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기도 했다.

체육행사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선수들의 활약은 내부적으로 체육열풍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2011년 김정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축구강국, 체육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담론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또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북한 여자축구가 우승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 여자축구 강국임을 확인시켰고, 이러한 분위기는 북한 사회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²⁰⁾ 김정은은 2015년 3월 25일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열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서한을 발표하며 전문체육 발전과 대중체육 발전을 동시에 강조하였다.²¹⁾ 북한의 전문체육을 발전하기 위한 선수후비육성은 학교체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교체육시간은 정규교과시간에 행해지는 체육시간과 과외체육²²⁾ 그리고 과외체육소조활동²³⁾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과외체육기관(운동구락부)이나 청소년체육전문학교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도 한다.²⁴⁾ 이것이 북한의 전문체육인(선수후비)을 길러내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북한의 체육교육에 대한

20)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6일. 이 신문에는 6개 면 중에 1, 2, 3면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이야기로 가득 메워졌다.

21) 북한에서 대중체육의 생활화와 전문체육의 강조는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일관하게 추진한 체육정책의 두 축이다.

22) 황종현,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외체육활동의 기본요구,” 『교원선진수첩』, 2014-1(평양: 교육신문사, 2014), 127쪽. 주로 국방체육이나 체육교원의 역량이 따라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육시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23) 북한의 소조활동은 학교 수업 이외에 방과 후 동아리 활동과 비슷한 형태로 여러 활동이 진행된다.

24) 북한에서는 소·초급중·고급중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외체육소조활동에서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은 각 시·군에 있는 운동구락부(과외체육전문기관)에 편입되어 운동하다 체육단이나 체육대학에 진학한다.

강조는 『사회주의 교육학』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회주의 교육 내용에 첫째로 정치사상교육, 둘째로 과학기술교육, 셋째가 체육교육이다.²⁵⁾ 이렇듯 정치사상교육은 차치하고라도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은 북한 사회를 이끌 인재 육성의 두 축인 셈이다.

더불어 대중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학교 단위에서 각 종목의 기량을 기르고 초보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한다. 북한은 2014년도부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를 새롭게 조직 개최하였다.²⁶⁾ 이 대회의 참가자는 학교나 일반 공장, 기업소 등 일터를 중심으로 종목별 체육대회를 조직하여 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를 치른다. 이 대회 종목에는 축구, 배구, 농구와 같은 전통적인 종목도 있지만, 2인 또는 3인이 함께 공을 이고 나르기와 같은 유희적인 요소를 갖춘 다양한 종목을 실시한다. 이러한 대중체육의 토대를 학교체육에 두고 졸업 후 직장까지도 이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중체육과 전문체육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는 학교체육에서 출발하고 있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두 체육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보완하여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북한의 ‘체육강국’ 건설에 있어 대중체육 발전과 전문체육의 선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가장 기초 단위인 학교체육이 이 두 가지

25) 남진우 외, 『사회주의교육학 사범대학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차례, 99쪽.

26)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들끓는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12일. 2013년까지는 전국도대항체육대회를 열었는데 2014년부터 종목 수와 참가단체를 도에 직할시까지 확대하는 등 ‘체육강국’의 정책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으로 시작하였다.

27) 최진환, “김정은 시대 체육시설의 변화와 의미,”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5, No.2(2019), 229~231쪽.

체육 방향에서의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비교·분석

1) 방향성 및 목표

본 장에서는 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에서 체육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체육과의 성격과 목표’를 근거로 남한 체육과의 방향성과 목표를 다루고자 한다. 북한의 2013 교육과정 안에 포함된 체육 교수요강의 ‘머리말’과 ‘교수목적과 교수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북한 체육교육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어 이 부분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남북한의 체육 수업 시수에 대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남한은 두 개 학년은 3시간, 한 개 학년은 2시간의 체육수업을 하고, 창의적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이 학년당 1~2시간으로 추가 배정됨으로써 주당 평균 4시간씩 체육수업이 진행된다.²⁸⁾ 그리고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선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일주일에 2시간씩 체육수업을 하고 7~8월에 1주일 동안 해양체육활동으로 수영 집중 수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과외체육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있어 이 시간을 이용하여 국방체육, 집단체조, 태권도 등을 배

28)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11~13쪽.

<표 2> 남북한 체육 수업 배당 기준표

구분	학교	교과목	주당 시수	1시간 수업시간	교과서
남한	중학교 나이: 14~16세	체육	3년 동안 272시간 34주/1년 기준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136시간 이상) 주당 평균 4시간(스포츠클럽 포함)	45분	14개 중 학교에서 선택
북한	초급중학교 나이: 13~15세	체육	3년 동안 204시간 1학기 18주, 2학기 16주 기준 과외체육 306시간/3년 (7~8월 해양체육활동 1주) 주당 평균 5시간(과외체육 포함)	45분	확인 안 됨. 교사용지도서 보급

자료: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1차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교수과정안을 요약했다.

며 학교 안에서 주당 평균 5시간의 체육수업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과 후에 학교 교원의 특기에 따라 과외체육소조가 구성되고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²⁹⁾ 이는 남과 북이 공통으로 방과 후 체육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총수업시간은 북한이 102시간이 많은데 이것은 토요일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당 평균 1시간을 더 많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교원선진수첩』에서는 과외체육은 체육수업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교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종목의 체육수업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29) 통일부, 『2021 북한의 이해』(서울: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1), 244, 253~254쪽;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195쪽.

30) 황중현,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외체육활동의 기본요구,” 『교원선진수첩』, 2014-1(평양: 교육신문사, 2014), 127쪽.

(1) 남한 체육교과의 방향성과 목표

남한은 7차 교육과정에서 체육과 목표를 인지, 정의, 심동 영역으로 나누어 설정했다면, 7차 개정교육과정(2007년)에서는 체육교과 목표를 신체활동의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였다.³¹⁾ 체육교과에 내재된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등 5가지로 체육과 목표와 내용의 체계를 바꾸었다. 그 이후 2009 개정교육과정(2010년)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정규시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주일에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체육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³²⁾ 2015 개정교육과정(2015년)에서 가장 큰 변화는 5가지의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가치에서 여가를 건강에 포함시키고, 새롭게 안전의 영역을 신설했다. 또 다른 변화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과별로 고유한 교과 역량을 선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에 교과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남한의 체육교육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 ‘체육과의 성격’에서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신체활동을 통해 삶에 필요한 네 가지의 교과 역량(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라고 할 수 있다.³³⁾ 여기서 남한의 체육교육 방향성은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체육 문화의 계승자’ 역할을 부여하고

31) 4차 교육과정(1981년)부터 7차 교육과정(2006년)까지 체육과 목표는 인지, 정의, 심동으로 구분한다.

32) 교육과학기술부, 『체육과 교육과정』(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33) 교육부, 『체육과 교육과정』(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표 3> 체육교과 역량의 의미

교과 역량 요소	의미
건강 관리 능력	신체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신체 수련 능력	자신의 신체적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수련 노력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경기 수행 능력	게임, 스포츠 등 유희적 본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신체 표현 능력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능력

자료: 『2015 체육과 교육과정』, 6쪽 표를 참조했다.

있다. 체육교과 역량을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그 하위의 체육교육 목표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지식, 기능, 태도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신체활동의 가치를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체육교과의 역량 네 가지를 습득하게 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 북한 체육교과의 방향성과 목표

먼저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안에 있는 체육 교수요강의 머리말에서 북한 체육교육의 기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체육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의 키를 크게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

시키며 그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김정일선집』 8권, 403페이지).

- 학교체육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며 그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 초급중학교 체육교수에서는 학생들에게 체육운동의 기초원리와 신체를 과학적으로 단련하고 보호하는 위생보건지식을 습득시키며 국가 기준키와 수영기준을 보장하고 몸을 기본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 또한 학생들이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맞는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선택하고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기능과 능력을 키워주며 튼튼한 체력과 강의한 의지를 키워주어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게 한다.³⁴⁾

이 내용은 초급중학교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체육과의 기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체육 교수요강은 북한 지도자의 교시가 근거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 북한의 체육교육과정은 실질적인 체격과 체력 그리고 운동기술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되 그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키르기 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교육사』 4에서 그 출발을 찾아볼 수 있다. 1962년 1월에 김일성은 만경대혁명학원과 해

34)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07쪽. 북한 1차 자료에 제시된 띄어쓰기, 문법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다.

주혁명학원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 키를 크게 하는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³⁵⁾ 1969년 11월 4일 학생들의 키에 대한 강조는 김일성의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에서도 강조되고 있다.³⁶⁾ 그만큼 왜소한 인민들의 체격을 건장하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키크기’와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라는 과제는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체육교육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키크기’라는 주제는 과거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출발한 것이지만, 현재 의미는 교육학적으로 볼 때 학생의 ‘성장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커간다는 의미에서 외형의 골격도 중요하지만,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하며 다양한 신체 기관의 균형 발달에 초점을 두고 체육교육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한 가지 이상의 체육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도 1970년대 김일성의 노작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³⁷⁾ 한 가지 이상의 운동 기술과 악기를 다루도록 지시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음악과 체육을 문화적 측면에서 모든 인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기능을 익히도록 강조한 것이다.³⁸⁾ 이는 학교에서 체

35) 강근조, 『조선교육사』 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360~361쪽.

36) 김일성,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김일성 저작집』 2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95쪽. “전쟁때 이 애들은 부모없이 혼자 살았거나 또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도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골격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학원의 많은 학생들은 키도 작고 몸도 약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체격이 기형적이었습니다.”

37) 김일성, “체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 1972년 9월 6일, 『김일성 전집』, 4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316쪽.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체육을 하고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룰줄 알아야 합니다.”

육교육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운동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직장 단위에서 행해지는 대중체육 대회 참가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추구한다. 실제로 기관, 공장, 협동농장 등에서 단위별로 체육대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민들이 직장·지역 단위로 예선을 거쳐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중체육대회만 해도 인민체육대회,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전국노동자체육경기대회 등 여러 대회가 존재한다.

셋째로, 체육의 기초원리와 위생보건지식을 습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체육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용 지도서인 『체육교수참고서』나 『교원선전수첩』 등에 나오는 자료를 이용하여 교원이 수업 지도안을 짜고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에 체육교과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체육 교수요강 안에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제시된 것을 보면 교과서를 학교 단위에서 교원이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넷째로 수영교육에 대한 강조다.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역점 사업이다. 이 내용은 북한의 『조선교육사』에서 그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1935년 5월에 간부훈련반은 …… 수영학교로 개편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⁹⁾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수영교육이 수영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의 지시로 1970년 노동당 5차대회 이후

38) 리영환, 『조선교육사』 6(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47~48쪽.

39) 김창호, 『조선교육사』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66쪽.

과외체육을 통하여 수영교육을 적극 진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⁰⁾ 또 1981~1984년에 등장한 여러 교시들에는 “일기조건에 관계없이 체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체육실을 잘 꾸리는 것과 수영장을 수많이 건설하여 학생들의 수영훈련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⁴¹⁾ 그리고 김정일이 1984년 4월 28일 평양 제1고등학교를 현지 지도 할 때 수영장과 체육관이 잘 갖추어져 모든 시설들이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갖추어졌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⁴²⁾ 이후 평가 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북한은 초급중학교에서 고급중학교까지 매 학년 수영 평가 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과거부터 수영교육을 강조해 왔다.⁴³⁾

다섯째로, 북한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이다. 체육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국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이다. 북한이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며 국가건설을 이뤄 온 배경에서 보면 국가가 필요한 교육의 방향은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남한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 목표에서는 네 가지로 제시하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이점은 그 목표의 서술방식이 “~위생보건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학년별키, 수영기준에 도달시키고 신체를 기본적

40) 리영환, 『조선교육사』 5(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15쪽. ‘바다가 지대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1~2km의 강은 능숙하게 헤엄쳐 건너간다고 하였다.

41) 리영환, 『조선교육사』 6, 53쪽.

42) 위의 책, 65쪽.

43) 초급중학교 3학년은 200M 만점, 고급중학교 3학년은 500M 만점으로 되어 있다.

으로 조화롭고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초운동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기초체력을 키워주고 강의한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다” 등 교사 중심의 교육 행위를 서술한 것이다.⁴⁴⁾ 학생의 도착점 행동이 아닌 교사가 무엇을 학생에게 전달하여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교사의 의도된 교육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사 중심의 목표 진술이었으나, 7차 교육과정부터는 학습자 중심의 목표 진술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도전정신을 발휘한다 등 학생의 변화와 도착점 행동에 초점을 맞춘 서술방식이다.⁴⁵⁾

체육 교육의 방향성(목적)과 목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한은 ‘자신의 삶’과 ‘체육 문화의 계승자’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하는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주의 체육교육에 있다. 다음은 교육과정의 위계성이다. 북한의 체육교육 목표는 북한 지도자의 교시에 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로 제시되어 있고, 체육교육의 방향성과 목표의 진술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반복적인 표현이라면, 남한은 체육교육의 목적과 목표의 위계를 갖추어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북한 체육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는 김일성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오는 것이 특징이라면, 남한은 1차부터 7차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질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며 체육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이 확장됐다는 점이다.

44)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07~208쪽.

45) 교육부, 『중학교 교육 과정: 체육』(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7).

2) 교과 내용

교과 내용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한다. 남한의 2015 체육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체육 교수요강에서 제시되고 있는 체육교과의 내용을 비교할 때 목차 표현의 차이를 보면, 남한은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북한은 ‘교수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안에 제시되는 순서와 목차는 상이하여도 결국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공통분모는 있다. 따라서 교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남한의 ‘내용체계’와 북한의 ‘교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남한 체육교과 내용

남한의 체육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1946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7차 교육과정까지는 체육교과를 인지, 정의, 심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으로 하였다면,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가치를 재개념화하면서 보편적인 개념, 원리, 수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그 다섯 가지의 영역 중 안전이 추가되고 여가는 건강에 포함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안전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었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체육교육과정에는 먼저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가르쳐야 할 ‘내용 요소’와 기능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각 영역의 신체활동을 어떤 종목과 내용으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예시를 정리해 줌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다섯 가지

<표 4> 중학교 1~3학년 신체활동 예시

영역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
건강	건강과 체력 평가	심폐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건강 체력
	건강과 체력 관리	간강 체조, 웨이트트레이닝, 인터벌트레이닝, 질병예방, 영양섭취 및 약물
	여가와 운동처방	단축마라톤, 파워워킹, 트레킹, 사이클링, 수영, 요가, 래프팅, 스키 등
도전	동작 도전	마루운동, 도마운동, 평균대운동, 철봉운동, 다이빙 등
	기록 도전	트랙경기, 필드경기, 경영, 스피드스케이팅, 사격, 궁도, 볼링, 다트 등
	투기 도전	태권도, 택견, 씨름, 레슬링, 유도, 검도 등
경쟁	영역형 경쟁	축구, 농구, 핸드볼, 럭비, 풋살, 넷볼, 슈크볼, 프러아블, 얼티미트 등
	필드형 경쟁	야구, 소프트볼, 티볼, 킨볼 등
	네트형 경쟁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정구, 족구 등
표현	스포츠 표현	창작체조, 리듬체조, 음줄넘기, 피겨스케이팅, 치어리딩 등
	전통 표현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외국의 전통 무용 등
	현대 표현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재즈댄스, 힙합댄스 등
안전	스포츠 활동 안전	스포츠 유형별 연습과 경기에서의 손상 예방 및 대처 활동
	스포츠 환경 안전	스포츠 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안전사고, 스포츠시설, 장비 사고예방
	여가 스포츠 안전	야외 및 계절 등의 여가 스포츠 활동 시 사고 예방, 심폐소생술 등

자료: 교육부, 『체육과 교육과정』(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39~40쪽을 참고하여 요약했다.

영역의 균형 잡힌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수·학습의 방향은 다섯 가지 영역의 특성을 설명하고 각 영역에서 성취해야 할 성취기준을 문장으로 제시한 다음, 교수·학습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중 ‘경쟁 영역’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학교 교육 여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경쟁 스포츠 활동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게임 수준의 기초 기능을 넘어 국내외에서 인정된 공식적인 경기 규칙과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심화된 경기 활동

이 되도록 한다”와 같이 종목 선택의 자율성을 열어 두었고, 각 종목의 세계 표준을 지향하는 경기 활동을 권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어디서나 통하는 경기 규정과 방법으로 세계인과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경기 수행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북한 체육교과 내용

북한의 체육교과 내용은 ‘교수내용’에서 다섯 가지 ‘범위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⁴⁶⁾

첫째로 체육과 건강, 위생보건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생리학적 지식, 역학적 지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원선전수첩』을 통해서 매년 네 번에 걸쳐 교수내용을 전달받고 있다. 두 번째 ‘키르기 운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체조와 육상 그리고 무용에서 다루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기초 기본운동에 해당하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키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키르기 운동’의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높이뛰기, 철봉 매달리기, 배구, 농구, 달리기, 줄넘기 등을 통해 키를 키운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운동인 체조나 육상, 무용 등을 통해서 학생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초기술운동’의 내용이다. 구기운동, 계절스포츠, 민족체육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배우고 소(小)경기를 치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한가지 기술이상을 소유하도록 한다’라는 교육목표와 연계된 내용이다. 실제로 배구, 농구, 축구 등 구기 종목의 기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과외체육소조활동으로 축구와 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인기도 많다.⁴⁷⁾

46)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08쪽.

<표 5> 북한의 교과 내용(교수내용 중 범위와 수준)

순	범위와 수준	교과 내용 요약
1	체육과 건강, 위생보건지식	성장발육과 건강증진에서 체력단련의 좋은 점, 식사량과 영양, 몸상태 알고 보호하기 등 과학적으로 단련하고 운동 역학과 생리학 기초지식을 습득
2	키르기 운동	대열운동, 기계체조, 달리기, 뛰기, 던지기, 물동체조와 체조무용 등 운동수행질서와 규정을 습득시키며 해당 학년 기준기에 도달
3	기초기술운동	구기(축구, 송구, 탁구, 배드민턴) 민족체육운동(씨름, 그네, 널뛰기), 계절운동(수영, 스케이트, 스키) 등 경기규칙과 소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
4	국방체육운동	근육의 유연성, 힘, 민첩성, 이동속도, 인내력, 장애물 극복능력, 태권도 운동 등 수행할 수 있는 능력
5	선택	축구종목 유희를 위주로 학교, 교원,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

자료: 『제1차 전반적12년제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안의 체육 교수요강에서 발췌했다.

또한, 7~8월에는 약 1주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인 수영교육이 이뤄지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를 동네 주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학생 대부분이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하는 운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⁴⁷⁾ 네 번째로 ‘국방체육운동’은 주로 체력운동과 태권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근력, 유연성, 순발력, 심폐지구력 등을 키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체력기르기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일반적인 체력운동도 있지만, 세 명이 부상병나르기(30m), 여러

47) 현주·김동선,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체육소조 활동의 변화,”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9권 제2호(2014), 162-170쪽. 이 연구의 인터뷰 조사 인용문에서 축구와 배구 종목에 대한 언급과 실제 탈북자 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48) 탈북자들에 의하면 학교에서 스케이트 표(구매 쿠폰)를 주어서 사기도 하고,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명이 무거운 물체나르기(50kg), 5~10초간 달리기, 철봉 매달리기, 장애물 뛰어넘기 통과하기 등 전쟁 상황과 관련된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태권도 운동을 강조하는데 틀동작(폼세)은 주로 과외체육시간을 통해 완성시킨다고 되어 있다. 1학년의 경우 6급 기초운동과 원효틀이라는 것을 배운다. 2학년은 5급 기초운동과 율(률)곡틀을 배우고, 3학년은 4급 기초운동과 중근틀이라는 폼세를 배운다고 되어 있다. 다섯째로 ‘선택 운동’이다. 각 학교 체육교원의 역량과 관계된 것으로 실제로 교원이 가르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는 체육교원이 전공했던 종목이나 학교의 특기 종목을 정해 과외체육시간 외에 과외체육소조활동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했다.

북한 초급중학교 체육과의 교수 범위와 수준의 내용은 크게 “① 키를 크게하고 몸을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기 ②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여 체육에 대한 관점과 태도, 능력키우기 ③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체력과 강의한 의지키우기” 등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신체활동을 묶어 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운동 종목을 배치하여 제시하였고, 학교에서는 교원에 의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체육 수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내용 체계’와 북한의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교과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통으로 묶어 낼 수 있는 영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큰 영역으로 묶는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남한의 ‘내용체계’와 북한의 ‘범위와 수준’을 큰 제목을 중심으로 대비시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을 다시 남한의 7차 교육과정(1997~2006) 체육 목차와 북한

<표 6> 남북한 체육교과 내용 비교

남한의 내용 체계	북한의 내용 체계	보충 설명
건강	체육과 건강, 위생보건지식, 국방체육운동, 선택	체육과 관련된 이론 내용, 기초 체력과 관련된 내용은 북한의 국방체육에 포함된 내용에서 체력요소의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운동과 선택 운동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 유사함.
도전	키르기운동, 국방체육운동	체조, 육상의 기본운동이 중심이 된 기록도전과 동작도전의 내용은 북한의 키르기운동의 내용과 유사함. 그리고 투기 도전의 내용은 북한의 국방체육에 포함된 태권도에서 찾을 수 있음.
경쟁	기초기술운동	구기 종목(축구, 농구 등)이 중심이 되어 팀을 이루어 하는 영역형 경쟁과 네트를 두고 경기하는(탁구, 배드민턴 등)를 한 네트형 경쟁으로 구분하는 것과 북한의 한가지이상의 기술습득관련 종목들과 유사함.
표현	키르기운동	무용, 댄스 등 율동과 관련되어 키르기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유사함.
안전	위생보건지식	운동전후의 자기 몸상태를 알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자료: 2015 개정교육과정과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안의 체육과 내용을 참고했다.

의 ‘범위와 수준’을 비교해 보면 그 운동 종목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남한의 ‘표현’과 북한의 ‘키르기운동’에서 무용 등을 통하여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킨다는 점과 남한의 ‘안전’ 영역과 북한의 ‘위생보건지식’의 영역에서는 위급한 상황이나 운동 수행과정에서 몸을 보호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표 7>에서 세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표현 방식을 비교하였다.

결국, 남북한 체육교과의 가르치는 내용은 분류 방식과 표현 방식 그리고 최종 지향점의 차이를 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은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남한의 7차 체육 교육과정과 현재 북한의 체육 교수요강의

<표 7> 남북한 체육 교육과정 교과(교수) 내용 표현 비교 정리

2015 개정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제1차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
건강	보건, 체력운동, 이론	리론(체육과 건강, 위생보건지식) 국방체육운동(체력운동)
도전	체조, 육상, 수영	키를 크게하고 몸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달시키기(체조, 률상) (계절체육: 수영, 스키, 스케이트)
경쟁	개인 및 단체운동	기술 기능 운동 (축구, 룡구, 배구, 정구)
표현	무용	예술체조 (키르기 운동의 한 분야)
안전	보건	위생보건지식

자료: 2015 개정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과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체육과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내용이 비슷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종목 중심으로 연관성을 본다면, 남한의 육상, 체조와 같은 도전정신을 강조한 종목은 북한의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키르기 운동'에 그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북한은 민족체육과 같은 전통 놀이 중심의 신체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지만, 남한은 교육과정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전통 민속놀이를 건강영역의 여가활동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 민속경기나 놀이는 남북의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함께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한이 체육교육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북한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운동 종목이나 체력운동의 내용과 남한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종목 군을 비슷하게 묶을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방향 및 방법

교수·학습에 대한 방향과 방법은 남한의 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통해 알 수 있고, 북한의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남한의 체육 교수·학습 방향은 ‘체육과 역량 함양’,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자기주도적, 전인적 발달’,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 ‘정과 외 체육활동과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학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중복학습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계획하도록 권하고 있다.⁴⁹⁾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중 ‘경쟁’ 영역의 한 부분만 교수·학습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중학교 1~3학년 군의 경쟁 활동은 경쟁 영역의 다양한 내용 요소와 스포츠 문화 전반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선정한다”라고 하며, 읽기, 보기, 토론 등 간접 체험 활동과 구기운동의 전략을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팀의 공동목표로 협동심 기르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⁵⁰⁾ 실제로 신체 활동, 가치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나 운동을 각 학교에서 선정하고 다양한 수업 모형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이 진행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북한의 체육교수요강에는 교수·학습이라는 부분이 구별되어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학년별 ‘범위와 수준’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교과서 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49) 교육부, 『체육과 교육과정』(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41~44쪽.

50) 위의 책, 34쪽.

- ① 교수내용을 당정책화하며 민족체육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원칙에서 편성하여 한다.
- ② 학생들의 성장발육과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체육과학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육체를 전면적으로 끊임없이 발달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⁵¹⁾

2012년 9월 25일 북한의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법령이 공포될 때 노동신문에는 교종별 교과서를 원만히 보장한다고 하였지만,⁵²⁾ 체육 교과서 유무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에 북한은 『체육교수참고서』를 제작하여 교수안작성법, 진도표, 도달기준, 교수내용과 방법 등을 제 공하고 있다.⁵³⁾ 이 교재를 통해 체육교원은 교수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체육교수요강에는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강조하였다. ‘당의 정책 내용 반영’, ‘체육 지식의 소유’, ‘체육활동에 주동적 참여하기’, ‘운동능력 습득’, ‘운동 반복심화와 피로 및 휴식의 강조’, ‘과외체육활동을 통해 숙련하기’ 등이다.⁵⁴⁾ 이것은 북한의 교수·학습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 으로 당의 정책 내용을 제외하면 남북이 체육수업에서 공통으로 적용

51)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27쪽.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53) 김성복 외, 『체육교수참고서 초급중학교 1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1~2쪽. 이 『체육교수참고서』는 학년별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교수 목적과 목표부터 전반적인 교수요강의 내용을 해설해 놓은 자료집이다. 우리의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단위 학교 체육교원은 교수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54)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28쪽.

가능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육교육의 최근 변화는 정보화교수모형에 관심을 두고 사범대학에서 현대체육과학에 기초하여 정보화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한 고민이 진척됨을 알 수 있다.⁵⁵⁾ 또 하나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북한은 체육수업에서 다양한 교수 매체 활용을 권장한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교수·학습에서 지켜야 할 원칙 두 번째에서 ‘필요한 지식을 원리적으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교원선진수첩』에서 제시하는 북한 체육교수 방법은 그림, 영화, 녹화물, 다매체편집물 등을 통해 동작을 습득하는 데 특성에 맞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⁶⁾ 또한, 운동 동작을 배우는 과정에 학습자의 관찰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⁵⁷⁾ 즉, 운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동작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한의 체육 수업에서도 간접 체험 활동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지향을 갖고 있다고

55) 정옥별, “체육학과 전공교수에서 정보화교수모형 작성의 필요성,” 『교원선진수첩』, 2019-3(평양: 교육신문사, 2019), 158쪽. “사범대학 체육학과 전공교수의 교수내용과 특성으로 하여 정보화교수모형 작성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는 교수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수모형작성은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56) 김성진, “기계체조과목교수에서 기술동작을 습득시키기 위한 몇가지 방법,” 『교원선진수첩』, 2013-2(평양: 교육신문사, 2013), 100쪽. “교수과정에 기술동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직관수단을 널리 리용하는 것이다. 직관수단인 걸그림, 영화, 록화물, 다매체편집물은 체육동작습득 과정의 매 단계에서 그 적용의 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특성에 맞는 직관수단을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57) 최은희, “체육교수에서 운동동작수행에 대한 관찰력 키워주기 위한 방법,” 『교원선진수첩』, 2015-4(평양: 교육신문사, 2015), 103~104쪽.

할 수 있다. 즉, 영화나 녹화물을 통해서 동작을 감상하고 분석하기 등과 같이 다양한 간접 체험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 모두 정규 교과시간 교수·학습과 연계된 과외 체육활동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에서는 정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과외체육시간(과외체육소조활동 포함)을 통해 운동 기술을 더욱 숙련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남한의 ‘정과 외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흡사하다. 실제로 남북 모두 과외체육소조 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 교과 시간 내의 수업과 방과 후 체육활동을 연계한 심화 과정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 중학교 축구반축구경기대회를 통해 각 학교의 축구 과외체육소조 활동에서 비롯된 선발팀이 모여 기량을 겨루고 있다.⁵⁸⁾ 다만, 북한의 현실적인 파악이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이 방과 후 체육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을 남과 북이 조직적인 대회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면에서 남북 체육교과 교류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평가

남북의 체육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에 비교적 정확히 표현되고 있다. 남한은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뒷부분인 평가를 참고하였고, 북한은 ‘학업성적평가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서 남북이 어떤 점을

58) “제12차 전국소학교축구반축구경기대회, 제8차 전국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축구반 축구경기대회 진행,” 『로동신문』, 2018년 7월 28일.

강조해서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남한의 체육 평가

우선 성취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남한의 체육교육과정에는 다섯 가지의 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에 대한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성취기준은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점을 의미한다. 다섯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의 내용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예만 제시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적용하고 있는 ‘경쟁 영역’의 일부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경기 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한다”와 같이 성취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마지막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⁵⁹⁾ 예를 들면, ~감상하고 분석한다,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 해결한다, ~ 준수하고 존중한다 등 성취기준을 학생의 도착점 행동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북한과 다른 점이다. 이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속성을 더 자세하게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평가의 방향은 (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나) 평가 내용의 균형성, (다)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의 다양성을 제시하며, 학교 단위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지필평가 보다는 수행평가 중에서도 실기평가에 비중을 더 높게 두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남북이 비슷한 경향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지식, 기능, 태도의 세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 또한 비슷하다.

59)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33쪽.

(2) 북한의 체육 평가

북한에서는 ‘학업성적평가원칙’을 두어 체육과의 평가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내용에는 네 가지를 제시하며 지식, 기능, 태도의 영역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표현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체육활동에 대한 태도: 체육수업출석률과 체육활동에 대한 자각성, 적극성, 규률성, 도덕을 기본으로 담화,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② 체육, 보건위생기초상식: 해당 학년요강에 주어진 체육, 보건위생 내용을 필답 또는 구답으로 평가한다.
- ③ 운동기능과 기교: 실기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시험내용과 평가기준은 부록과 같다.
- ④ 선택운동: 실기의 방법으로 평가하며 시험내용과 평가기준은 부록과 같다.⁶⁰⁾

평가 방법에 태도와 관련한 내용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고, 담화와 구답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제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필 시험과 함께 묻고 답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방법 중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 깨우쳐 주는 교수 교양과 관련이 있다. 즉, 문답식 방법을 적용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⁶¹⁾

60)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29쪽.

61)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 저작집』, 32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6), 391쪽.

<표 8> 학년별국가기준키 및 수영기준(초급중학교)

학년	키(cm)		수영(m)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142	143.5	75	75
2	147.5	149.5	100	100
3	154.5	154.5	200	200

자료: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29쪽의 표.

평가는 학기 말과 학년말 시험 두 번에 걸쳐 실시되며, 이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여 지표별 도달기준을 제시하였고, 운동 평가 성적은 누가기록을 해두었다가 종합채점에 참고할 것을 강조하며,⁶²⁾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영에 대한 기준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2013 교육강령이 발표되고 나서 새 세기에 인재 육성 요구에 맞는 체육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⁶³⁾

북한은 국가가 학교 단위에서 평가하여야 할 구체적인 평가 기준까지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평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12년 9월부터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상급반 진학에 체육 평가점수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조치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⁶⁴⁾ 따

62)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29쪽.

63) 류철혁, “체육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바로 설정하려면,” 『교원선진수첩』, 2013-1(평양: 교육신문사, 2013), 127쪽. “새 세기 인재육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시험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학생들의 창조적 적용능력을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4) 김홍태 외, “북한 체육강국 건설의 의미와 실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5.), 91쪽.

라서 국가 단위의 절대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국가 단위의 키에 대한 기준과 수영 도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8>을 통해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현재까지 ‘키크기 운동’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영에서의 도달 기록은 그 기준이 매우 높다. 남한에서는 수영기록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북한은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매해 7~8월의 집중 수영 교육을 통해 초급중학교 3학년 학생이면 200m 이상을 헤엄쳐 갈 수 있어야 만점을 받는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수영 도달기준에는 유일하게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가운데 하나가 수영장이다.⁶⁵⁾ 북한의 체육 교수요강에는 학년별 도달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초급중학교 1학년을 예시로 보면 <표 9>와 같다.

중학교 1~3학년까지의 체육 지표별 도달기준표가 제시된 형태는 마치 남한의 단위 학교 수행평가 기준안을 연상하게 한다. <표 9>는 초급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의 평가 기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학 교재에 제시된 평가 지침에는 “민족체육, 국방체육, 국기종목, 룰동종목과 체조무용, 태권도 등의 성적평가는 평상시 성적을 기록해두었다가 종합체점을 할 때 참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활동에 대한 태도, 체육과 건강, 위생보건지식은 이론과 태도 시험으로 학기말과 학년말 시험에 모두 포함하고, 신체운동 기능 및 능력지표는 각각 학기말에는 2개, 학년말에는 4개를 설정하여 평가한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⁶⁾ 그런데 교수요강 안에 고급중학교

65) 리영환, 『조선교육사』 6, 65쪽.

66) 김성복 외, 『중학교체육교재분석(사범대학)』(원산: 교육도서출판, 2016), 99, 109쪽.

<표 9> 1학년 지표별 도달기준

		1. 체육기초지식				5%				
		2. 출석 및 수업 참가태도				5%				
		3. 신체운동기능				50%				
번호	지표	점수		5	4		3	2		
				5	4		3	2		
1	마루운동결합 (남, 녀)	동작을 정확하게 100% 수행하였을 때	동작을 비교적 정확하게 100% 수행하였을 때	동작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100% 수행하였으나 동작이 가볍고 자연스럽지 못할 때	동작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자세가 정확하지 않을 때		50%			
2	조마 누워 뛰어 넘기 (남, 녀)									
3	철봉 한발 구르며 거꾸로 오르기									
4	고저평행봉 한발 구르며 거꾸로 오르기									
		4. 신체운동능력				40%				
번호	지표	점수		성별			5	4	3	2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1	50m 달리기(s)	8" 4	8" 7	8" 5	8" 8		8" 6	9" 0	8" 7	9" 2
2	400m 달리기(min·s)	1' 35"	1' 40"	1' 38"	1' 44"		1' 40"	1' 45"	1' 43"	1' 50"
3	높이뛰기(cm)	95	90	93	87		90	84	87	80
4	너비뛰기(cm)	3.20	3.05	3.15	3.03		3.10	2.98	3.05	2.88
5	단봉 및 수류탄 던지기(m)	27	24	24	20		21	17	18	14
6	수직봉 오르기(m)3회	17.5	15	16	13.5		14.5	12	13	10.5
7	30s간 지상현수 ¹⁾	11	10	10	9		9	8	8	7
8	1min간 누웠다 윗몸 일으키기 ²⁾ (회)	25	20	20	15		15	10	10	5
9	1min 30s간 뽀뽀뛰기 ³⁾	155	160	150	155	145	150	140	145	
10	수영(m)	75	75	70	70	65	65	60	60	

주: 1) 30초간 팔굽혀펴기를 말한다.

2) 윗몸일으키기 운동은 남한의 방법과 다르다. 북한은 다리를 완전히 펴고, 발목만 잡아주는 상태에서 머리가 매트에 닿고 일으켰을 때 다리에 상체를 최대한 가까이 대야 하는 자세로 측정한다.

3) 뽀뽀뛰기는 줄넘기이고 1분 30초 동안 1단으로 뛰는 것이다.

자료: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30쪽의 표를 옮겼다.

<표 10> 남북한 체력측정 종목 만점 기준 비교

구분	50m(초)		제자리멀리뛰기(cm)	
	남	여	남	여
남한	7" 30	8" 80	218.1	198.0
북한	8" 0	8" 3	215	193

주: 15세(북한의 초급중학교 3학년, 남한의 중학교 2학년) 기준.

자료: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 232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학교체육업무 매뉴얼, 100~101쪽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했다.

체육에는 구기 종목 평가 세안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만, 초급중학교 구기 수업(축구, 배구, 송구 등) 평가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교 자율에 맡기거나 수업은 하고 평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⁶⁷⁾

다른 한편으로, 학년 지표별 도달기준을 남한의 PAPS(학생건강체력 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⁶⁸⁾ 즉, 체력 요소의 내용과 종목에서 남한의 PAPS 종목과 일치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다. 50m 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초급중학교 3학년 기준과 남한의 중학교 2학년 기준을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의 기록기준으로 보면 남학생은 남한의 학생들이 북한의 학생들보다 50m와 제자리멀리뛰기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50m에서는 북한의 기준이 남한보다 더 높지만,

67)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평양: 교육위원회, 2013), 307~314쪽.

68) 예전에 체력장 내지는 체력검사라고 불리던 것이 PAP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2009년 초등학교부터 점차 적용되었다. 새로 비판 측정이 추가되고 체력 요소 측정 방법이 다양해졌다.

제자리멀리뛰기는 남한의 기준이 높다. 물론 이 기준의 차이가 체력의 높고 낮음을 추론할 만한 기준은 되지 않지만, 남북의 체력기준에 관한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

남북의 체육 평가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 기준 점수를 국가가 정해 주었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교수·학습과 평가의 연계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은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수·학습과 평가의 연계성을 보인 데 반하여, 북한은 교수·학습과 평가의 연계성에 논리적인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체조의 자세평가와 신체운동능력의 체력평가가 수업 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세 가지 ‘교수범위와 수준’에서 제시된 교육 내용에 빗대어 보면 체조와 체력평가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남북 체육교육의 근본적인 차이는 70여 년 서로 다른 체제에서 굳어진 사상의 차이가 가장 크다. 결국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국가가 어떤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가의 철학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교육을 통해 기르고 각각의 체제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교육과정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육 본연의 가치는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아 남북 체육 교류와 통합 관점에서 공통분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 체육교육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키크기 운동과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 소유,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체육교육의 일반론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체육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모든 교육과정이 최고지도자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어 목적과 목표에 이르고 다시 체육교육의 내용이 갖춰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한 체육교육의 한계는 체육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국방체육과 같은 체력 운동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체육에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하겠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유희적 요소와 기술운동에서는 정보화, 과학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갖는다.

2015년을 전후하여 학계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통합 교육과정 연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통일에 대한 이슈보다는 남북의 평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선차적인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남북 통합 교육과정을 고민하기 전에 북한의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남북 교육 교류와 통합의 시기에 대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남북 체육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대안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의 체육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북한의 체육교육에 대한 위상은 남한보다 상위에 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서열에서도 나타나며, 사회주의 교육학에서도 체육교육은 내용적 측면에서 중심에 있다. 그만큼 북한의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에 있어 중요한 교과이며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북한의 체육시설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통한 체육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는 바, 김정은 시대의 체육 교육은 과거 노동과 국방을 강조하기 위한 체육에서 대중체육과 전문체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체육교육의 위상은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비하여 높지 않으나 교육과정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신체활동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진화를 통해 학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개방적이며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교육과정에 명시함으로써 평생 체육활동의 모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체육교육이 가지는 위상은 그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므로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체육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은 신체활동을 바라보는 가치의 차이가 있으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 교과 교류와 통합논의는 체육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체활동의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체육대회를 통한 교류 협력이 선행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둘째, 체육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남과 북은 공통점이 많다. 또한, 남한의 교육과정 변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2013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체육 교수요강과 남한의 6-7차 체육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면에서 비슷한 구성 형태로 볼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구체적인 종목의 구분과 표현 방식은 다르나, 도전 활동영역에서 육상, 체조, 수영 등의 운동은 북한의 ‘키르기 운동’과 흡사한 내용이며, 경쟁 활동영역에서 각종 구기 종목은 북한의 ‘한 가지 이상 운동기술’ 습득 내용과 유사하고 남과 북 모두 학생들의 수요가 많고 방과 후 과외체육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연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남한과 비슷하다. 그 밖의 건강, 표현, 안전의 영역에서도 남북의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의 교과 내용 측면에서 교과 교류와 통합 논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이 오랜 시간 다른 환경에서 체육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체육교육 안에는 교과 내용의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계 표준을 지향하는 공통의 가치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과외체육소조 활동을 통해 교과시간에 배운 내용을 숙련할 것을 요구하고, 남한도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남북은 교과시간 외에도 자발적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학생들이 과외체육소조나 학교스포츠클럽을 매개로 체육 교류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남북체육 교류 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상징적인 교류에서 탈피하여 남북 학생들이 중심이 된 교과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인 남북 교육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남북 교수·학습의 방향성과 평가 영역에서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학습의 방법과 평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남북이 같으나,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신체활동의 예시로 보여 주는 종목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선택의 폭이 넓고, 교수·학습에 수업모형을 적용하려는 남한의 체육교육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모두 체육 교수·학습에서 직접 체험하는 학습 활동 이외에도 간접 체험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체육 교수·학습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한은 대다수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심의 실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학교 자율

성에 맡기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론 평가, 실기 평가, 문답 평가 등 평가 형태의 다양성이 엇보인다는 특징은 있지만, 국가가 체육교과의 평가기준을 확일적으로 제시하고 적용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즉, 국가 주도 체육교육의 단일화는 데이터 통계를 통한 일률적인 정책 반영이 쉽겠으나, 신체활동의 다양한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학교 그리고 지역 단위의 차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남한의 평가 방식 중 수행 평가 안에는 다양한 평가 방식이 가능하고 단위 학교 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평가의 강제성이 떨어짐으로써 학생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데에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구성에서 평가의 단점이나 장점이나를 논하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체육 교수·학습과 평가 영역에서 남북의 체육 교사들이 서로 경험한 교수·학습법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우선 열릴 필요가 있다. 남북 체육 교사들의 만남은 남북 체육교육과정의 차이와 공통점을 토대로 교과 통합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의 교육 행정 단위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미리 고민하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7월 29일 / 채택: 8월 5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강근조, 『조선교육사』 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평양: 교육위원회, 2013).

_____,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평양: 교육위원회, 2013).

김성복 외, 『체육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1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_____, 『중학교체육교재분석(사범대학)』(원산: 교육도서출판, 2016).

김창호, 『조선교육사』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리영환, 『조선교육사』 5(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_____, 『조선교육사』 6(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2) 논문

김성진, “기계체조과목교수에서 기술동작을 습득시키기 위한 몇가지 방법,” 『교원선전수첩』, 2013-2(평양: 교육신문사, 2013).

김일성,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제2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 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_____, “체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전집』 4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류철혁, “체육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바로 설정하려면,” 『교원선전수첩』, 2013-1(2013).

정옥별, “체육학과 전공교수에서 정보화교수모형 작성의 필요성,” 『교원선전수첩』, 2019-3(2019).

최은희, “체육교수에서 운동동작수행에 대한 관찰력 키워주기 위한 방법,” 『교원선진수첩』, 2015-4(2015).

황종현,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외체육활동의 기본요구,” 『교원선진수첩』, 2014-1(2014).

3) 신문

“신년사,” 『로동신문』, 2011년 1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6일.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들끓는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12일.

“김정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5년 3월 26일.

“제12차 전국소학교축구반축구경기대회, 제8차 전국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축구반 축구경기대회 진행,” 『로동신문』, 2018년 7월 28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체육』(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7).

_____, 『체육과 교육과정』(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_____,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체육』(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교육과학기술부, 『체육과 교육과정』(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메뉴얼』(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통일부, 『2021 북한의 이해』(서울: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1).

2) 논문

- 김두정, “학교 교육과정 이론의 다양성과 한국적 선택,” 『교육과정연구』, 제31권 2호(2013).
- 김호영, “남·북한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비교분석”(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홍태·김영란·윤정선, “북한 체육강국 건설 의미와 실제,”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5).
- 김희수, “남·북한 간의 체육교육과정 비교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6권(2010).
- 배명훈·김진숙·김상목, “독일 교육통합 과정 분석을 통한 남북 체육과 교육과정 통합 방안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4권 4호(2020).
- 이규일·허창혁,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체육과 평가 실태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제18권 4호(2011).
- 이승희,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본 체육 통일교육 발전방안,” 『인문사회지』, 제9권 4호(2018).
-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2014).
- 조주연,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의 근거 탐색,” 『초등교육연구』, 제10권 1호(1996).
- 최진환, “김정은 시대 체육시설의 변화와 의미,”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5, No.2(2019).
-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6호(2015).
- 현주·김동선,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체육소조 활동의 변화,”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9권 2호(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s of South and North Korea: South Korea's 2015 Revised Curriculum and North Korea's First Comprehensiv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Choi, Jin Hwa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PE) curriculums of the two Koreas to reveal thei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The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within North Korea's 2013 education code and South Korea's 2015 revised curriculum are the comparative data used, with four categories of comparative analysis applied: purpose and direction of education, content of education, teaching-learning, and evaluation. North Korea's PE syllabus focuses mainly on three themes: to harmoniously develop through exercise height and body, to possess more than one sports skill, and to foster talented people who can contribute to labor and defense. Based on the comparison, several

things are apparent. First,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ir physical education. Second, in terms of content of physical educat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a lot in common. At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South Korean curriculum, the 6th and 7th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hows similar form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s to the PE curriculum of North Korea's 2013 education code. Third, inter-Korean teaching-learning dire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s show commonalities – that after-school physical activity has been activated – and differences – in North Korea, evaluation standards are led by the state, whereas in South Korea, autonomy in evaluation is guaranteed. For the future exchange and integration of inter-Korean physical education subjects, promoting student-centered sports exchange competitions through South Korean school sports clubs and North Korean extra-curricular sports teams, which are commonly held after school, can be a viable alternative.

Keywords: inter-Korean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physical education teaching syllabus, school sports clubs, extracurricular sports clubs